

# 걷기 사회·문화적 의미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걷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고, 걷는 방법을 터득한 후에는 끊임없이 걸으며 인생이라는 짧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

최근 들어서는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으로 부상하면서 너도 나도 걷고 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열풍을 반영하듯 서점가에는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다. 걷는 즐거움을 말하는 에세이에서부터 건강법, 걸어서 하는 여행안내서까지. 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틱낫한 스님은 걷기 명상으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고 돌보라 한다. 과연 걷는 것은 어떤 의미와 힘이 있는 것일까.

## 보편적 행위로서의 '걷기' 조망

### 걷기-생각하기-문화 연결고리 찾아

<걷기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걷기에 대한 보편적 역사를 처음으로 다룬 책이다. 인간의 진화, 도시 설계, 미로, 러닝머신, 성 문화, 걷기 클럽 등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걷기라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로서 바라본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술 문화 비평가 및 큐레이터이며 환경운동가인 미국의 레베카 솔닛이다.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시선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단순한 신체적 동작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행위로서의 걷기를 실천한 수많은 인물과 사건 이야기로 가득하다.

산책, 순례, 등산, 행진 등 걷기의 여러 형태와 역사를 두루 살핌으로써,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걷기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세계에 길을 내고, 세계와 만남으로써 세계의 모습을 바꾸는 방식, 행

동이 문화를 반영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 바로 걷는다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걷기와 생각하기, 걷기와 문화에 대한 관련 고리를 찾아내고, 자동차와 속도 위주의 현대인에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워즈 워스, 게리 스나이더, 무소를 비롯하여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모인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까지, 역사 속에서 걸었던 인물들을 포함하여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삶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몸과 상상력, 그리고 이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놀

라운 탐구라 할만하다.

이 책은 4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영감을 얻었던 철학자와 시인들의 삶을 통해 걷기와 사유의 관계를 말한다. 2부는 축제와 순례, 행진과 혁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걷기의 의미를 풀어낸다. 3부는 런던 파리 뉴욕 등 대도시에서의 걷기와 걷기의 성적인 함의를 다룬다. 끝으로 4부는 현대적 풍경으로서 걷기의 상실과 이를 보완하려는 예술적 시도를 중심으로 문명비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같은 전개를 통해 걷기는 모든 곳을 통과하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자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임을 이야기한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 '걷기의 역사'

레베카 솔닛 지음 / 김정아 옮김  
민음사 / 1만5천원



◇길은 끝이 없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자, 그 세계의 모습과 문화를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영혼의 해부>는 조금은 낯선 직관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이야기한다. 직관의학이란, 해부학과 직관, 몸과 마음, 영혼과 에너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케롤라인 미스 박사가 이 분야에 대한 지난 14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 책에서 요약했다.

저자는 "직관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면서 "누구나 자기 몸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에너지의 언어로 볼 줄 알고, 자기 영혼 또한 의식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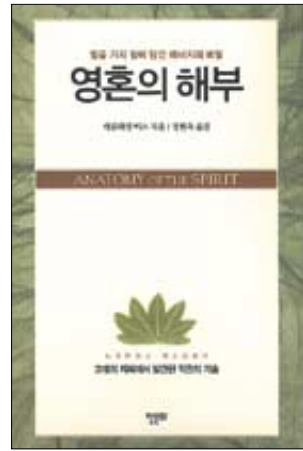
영혼의 문제를 건강과 결부시켜 일상화시킨 이 책은, 영성의 문제가 특정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를 아끼고 건강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직관으로 질병 치유한다

## 인체 감정에너지 감지방법 설명

### '영혼의 해부'

케롤라인 미스 지음  
정현숙 옮김  
한문화 / 2만원



저자는 직관을 통해 인체의 미묘한 기 에너지를 읽음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감정 에너지를 진단해내고, 신념 체계와 에너지 체계의 균형을

뒤 흐드는 깊고 쓰라린 체험이나 태도 등을 감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질병의 발생과 치유 모두 자기 자신의 책임이므로 노력과 자기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건강 뿐 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내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심신수련, 명상 등의 효용이나 활용법 등을 통해 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민속의학 등을 영성과 함께 다루어 방법상의 편견을 배제하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치유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이시 히로유키 외 지음 / 이준하 옮김  
경당 / 9천8백원



# '환경코드'로 지구·인간·문명 분석

태산(泰山)은 앞에서 보면 산(山)이요, 옆에서 보면 들(野)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태산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듯이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 성쇠에 관한 내용이었다. 간혹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이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책은 인간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환경사학(environmental history)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 문명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자들은 책에서 이스터섬의 붕괴를 통하여 반복되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남태평양엔 '모아이'라는 거대한 석상들로 유명한 이스터 섬이 있다. 5-6세기에 태평양 전역에 퍼져 살던 폴리네시아인 수십 명이 이곳으로 이동해서 섬의 주인이 된다. 이후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50㎞쯤 되는 이스터 섬의 인구는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먹을거리뿐 아니라 수목이 사라지고 거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면서 부족간에서 서로 잡아먹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이스터섬은 붕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오늘날 이스터섬에 남겨진 거대한 석상은 환경사가 경고하는 지구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밖에도 기후변동이 민족이동에 미친 영향, 네안데르탈인과 매머드의 절멸 원인, 물과 그리스?로마 문명과의 상관성, 중세 유럽 페스트의 창궐과 인간 거주유형의 연관성 등 다양한 주제를 환경적 관점에서 풀어 나간다.

그 중의 재미있는 사실은 기원전 4-5세기 그리스의 은산(銀山)에서 은의 대량채굴과 정련과정에서 연기로 나무가 말라죽고, 사람들이 건강문제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굴뚝을 세워 오염물질을 분산시키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광산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56m의 굴뚝을 세워 해결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2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 문명과 기타 문명 등을 통하여 발전된 문명은 무렵에는 삼림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다가 다시 자원이 부족해지면 보호를 외치는 식의 행태가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모두가 경제성장에 미쳐서 지속성을 잃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자기통제장치가 작동하는 건설한 문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농업혁명이 1만 2,000년전에 일어나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5,000년 정도가 걸렸다. 5,700년전에 시작된 도시혁명도 5대문명을 건설하기까지는 약 1,500년이 걸렸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2000년전에 전 인류를 석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의

전파와 그 전파기간이 점점 단축되어 우리들의 시간 감각도 무척 짧아졌다. 시간인식이 너무 짧아져서 모든 걸 멀리 내다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그림의 문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욕망을 무한하다, 세상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모두 분출시킨다면, 지구환경은 유한한 것이기에 앞으로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利他)의 정신으로 욕망을 조절하는 환경혁명을 통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걸 고려하는 세계관을 인간 스스로 되찾아서 공존하는 지혜의 세상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 뒷머리에 쓰여 있는 경구를 결론으로 전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오염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병민 교수/말타대 환경공학과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는 인간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특집사보 발간

# 불교설법전서

**기념책자 견본**

- 불국법 요식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 의탄생과 의미
- 부처님 의성 도의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안 등불을 밝히니?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포지 포함)

**특집사보 견본**

- 불국법 원문
- 부처님 의탄생과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 공부
- 불교환경 운동과 수행
- 불교의외인 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쪽(포지 포함)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펴시다.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500쪽) 3만 원	5권(720쪽) 4만 원
2권(600쪽) 4만 원	6권(816쪽) 5만 원
3권(612쪽) 4만 원	7권(894쪽) 5만 원
4권(738쪽) 4만 원	8권(798쪽) 5만 원

기념책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특집사보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포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 소식, 초파일 행사 식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설법연구원판(가격 30,000-50,000원)
  - 참회정진  
독법 편지 | 3,000원
  - 이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영 구성 | 7,000원
  - 천수경  
은오연 편지 | 6,000원
  - 신묘장구대다라 강해  
영근 동지 |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설법연구원판 | 10,000원
  - 불교사경집  
설법연구원판  
영철·반야스님 | 3,000원,  
지장경 | 5,000원
  - 불교지도지본 I  
설법연구원판 |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산 유역서 | 2,2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래미 최민지·진우기 옮김(공역 2명)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김장영·방정일공역(공역 2명)